

봄철 야외활동 늘자 '길 잃음' 사고 속출

도내 오름·둘레길 탐방 중 최근 5년간 558건·8명 부상 10건 중 4건 '고사리 때문에'... 제주소방, 주의보 발령

지난 18일 오후 5시 43분쯤 제주시 애월읍 큰녹고메 오름을 탐방하던 30대 A씨와 B씨가 길을 잃었다. "길을 못 찾겠다"는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이들을 찾아 구조해 귀가시켰다. 지난 8일 오후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어오름 인근 한라산둘레길 코스를 걷던 60대 C씨가 길을 잃어 119에 의해 구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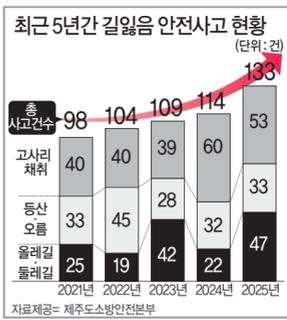
제주에서 '길 잃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

간(2021~2025년)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모두 558건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111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길 잃음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98건, 2022년 104건, 2023년 109건, 2024년 114건, 2025년 133건으로 늘었다. 사고 건수의 60% 이상은 3~5월 봄철에 집중됐고, 봄철 중에서도 4월이 38.7% (216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사리철(4~5월)이 다가오면서 길 잃음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 중 41.6%(232건)가 고사리 채취 중 발생한 사고였다.



연도별로는 2021~2022년 각 40건, 2023년 39건, 2024년 60건, 2025년 53건이다.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구조돼 무사히 귀가하지만 부상 1명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이러 등산·오름 탐방(30.6%·171건)과 올레길·둘레길 탐방(27.8%·155건)을 하다 길을 잃은 사고를 당했다. 등산·오름 탐방과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길 잃음 사고로 각각 4명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동부 읍·면 지역이 56.3%(314건)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부 읍·면 지역이 25.8%(144건), 제주 시 동지역 11.8%(66건), 서귀포시 동지역 6.1%(34건) 순이었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달 20일부터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도 소방안전본부 측은 "고사리 채취시 항상 일행과 동반하고 휴대 전화, 호각 등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한다"며 "오름과 둘레길 탐방 전 기상상황과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불법 치과 시술 중국인들 징역형 집유 어제 항소심... 재판부 "질서 왜곡 중대한 범죄"

제주에서 무면허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와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이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을 적용해 A씨는 3374만여원, B씨는 341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9월 사이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읍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명 '치아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 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소정기자

에월포레스트 재해영향평가 구역 누락 논란

개발 전 원지형, 중·후 단계에서 일부 빠져

"분석 신뢰성에 의문... 수문 분석 다시 해야"

제주 중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화그룹의 '에월포레스트' 사업의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지구 내의 일부 구역의 수문 분석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문 분석은 물의 흐름과 양을 과학적으로 계산·예측하는 작업이다.

제주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열린 회의에서 에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구역 구분, 숙박동 배치, 저감처리대책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이같은 조건을 이행한 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에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업 부지 내 구역 설정 및 수문 분석의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월포레스트 사업은 구역 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홍수량 산정지점을 개발 전·중·후, A·B·C·D·E·외부 6개의 구역으로 나눠 구분했다. 개발 전에는 원지형 그대로 산정했지만 개발 중·후 단계에서는

일부 구간이 빠지고 저감시설이 설치된 구간만 평가 대상 구역으로 포함됐다. 부지 내 원형보전녹지 구간도 평가 대상 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심의 위원들은 "비가 오면 같은 지점으로 흐르는데, 공사 후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됐다"며 "현재 분석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수문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로 인한 조금의 미세 우수 증가도 간과하지 않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게 재해영향평가인데, 원형보전이라는 이유로 유역을 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사업계획에 맞춰 유역을 뺀 것처럼 보인다"며 "평가 대상지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수문분석을 진행해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지금 도면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업자 측은 "원형보전녹지 구간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역이 부지 안으로 안 들어온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소영기자

남방큰돌고래 '쨌돌이' 페어구 벗고 자유 유영

지난해 12월 23일 페어구에 갇혀 등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발견됐던 제주 새끼 남방큰돌고래 '쨌돌이'. 발견 87일 만에 페어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19일 다크제주에 따르면 돌고래 '쨌돌이'가 스스로 그물을 완전히 제거해 자유를 얻은 모습을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포착했다.

지난해 처음 발견 당시 '쨌돌이'는 몸통에 페어구가 얽힌 채로 발견됐지만 지난달 22일에는 등지느러미의 9/10 정도가 잘린 상태였다.

제주도돌고래구조전담TF는 그동안 '쨌돌이'를 구조목욕에 올리고 추적 관찰을 해왔다. 다만 엄청난 속도로 유영하는 데다 컨디션 난조 등을 고려해 구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해왔다. 구조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쨌돌이' 촬영 영상을 토대로 행동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박소정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공한지에 어선에서 나온 페어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부터 제주도 '이륜차 전국 번호판'

제주에서도 지역 표시 없는 전국단위 이륜차 번호판 도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20일부터 이륜차 동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차 신규 사용 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시 전국 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 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mm×세로 150mm'로 기존 번호판(210mm×115mm)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구조상 전국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 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